2025년 4월 27일 부활 제 2주일 (하느님 자비 주일)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30 (예수 부활하셨네)	235 (인자하신 성마리아여)	499 (만찬의 신비)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제 1독서 | 사도행전 5,12-16

화답송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좌)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우)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좌)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제 2독서 | 요한묵시록 1,9-13.17-1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20,19-31

영성체 후 묵상 |

신앙의 길에서 때로는 의심과 어려움을 마주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며, 세상을 향한 희망과 믿음의 길을 걷도록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Today's Gospel (John 20,19-31)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oors were locked, where the disciples were,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in their midst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When he had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side. The disciples rejoiced when they saw the Lord. Jesus said to them again,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send you."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to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Whose sins you forgive are forgiven them, and whose sins you retain are retained." Thomas, called Didymus, one of the Twelve, was not with them when Jesus came. So the other disciples said to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to them, "Unless I see the mark of the nail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into the nailmarks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Now a week later his disciples were again inside and Thomas was with them. Jesus came, although the doors were locked, and stood in their midst and said, "Peace be with you."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and see my hands, and bring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and do not be unbelieving, but believe." Thomas answered and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Jesus said to him, "Have you come to believe because you have seen me?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have believed." Now Jesus did many other signs in the presence of his disciples that are not written in this book. But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come to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through this belief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지막 강론 - 2025년 4월 20일 부활대축일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의 돌이 치워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깜짝 놀란 두 제자도 길을 나서는데, 복음서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달렸다"(요한 20,4)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 달리고 있습니다!

(옆 페이지에 계속->)

한편으로는, 그들이 달린 이유가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 막달레나, 베드로, 요한의 서두름은 마음의 갈망, 곧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내면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더 이상 죽음의 포로가 아니시며, 수의에 감싸여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단지 옛 이야기 속의 인물로, 고대의 영웅으로, 박물관 속 조각상으로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 이웃의 얼굴 속에서, 일상적인 일 속에서, 무덤이 아닌 모든 곳에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하셨기에, 이제 어디에나 현존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형제자매들과의 길 위에서, 일상의 평범하고도 뜻밖의 순간들 속에서 당신 자신을 감추시기도 하고 드러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통해 함께하시고, 우리 각자가 행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활 신앙은 안락한 "종교적 위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막달레나와 제자들처럼 달려가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말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우리는 매일 주님을 잃는 듯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매일 다시 그분을 찾아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당신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며, 당신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삶을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의 어둠을 이기시며, 세상의 그늘까지도 이기셔서 기쁨 가운데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오로가 말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 (필립 3,13-14) 나아가는 것이지요.

마리아 막달레나, 베드로, 요한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갑시다. 희년은 우리 안에 희망의 선물을 새롭게 하라고 초대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희망 안에 맡기고, 길에서 만나는 이들과 희망을 나누며, 우리 삶의 미래와 인류 가족의 운명을 희망 안에 맡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덧없는 것들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슬픔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분의 친구가 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총을 다시 발견합시다. 그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게 합시다.

신학자 앙리 드 뤼박이 말했듯이, "그리스도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교는 곧 그리스도다. 아니, 진정으로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희망으로 열어줍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축일에 저희도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이 영원한 새로움의 체험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습관의 슬픈 먼지와 피로, 무관심에서 저희를 정화하시고, 매일 아침, 놀라움으로 눈뜨게 하소서. 이 아침만의 새로운 빛깔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으며, 아무것도 낡은 것이 없습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부활 신앙의 경이로움 안에서, 평화와 해방에 대한 모든 기대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공지 사항

1.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예비신자 교리반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가톨릭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세례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성당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혹은 성당 카카토톡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마지막 고통과 병환에도 불구하고 지상 생활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대로 봉헌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던 주님이자 착한 목자이신 분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

"다리를 짓고 장벽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은 교황님이 여러 번 반복한 호소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의 교황님의 신앙의 봉사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에 대한 봉사와 항상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많이 모여 있는 우리는 하느님께서 교황 프란치스코를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도록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연설과 개별적인 만남을 마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제 저희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일 이 대성전의 발코니에서 모든 하느님의 백성과 마지막 포옹을 나누셨듯이 하늘에서 교회와 로마, 전 세계를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4월 13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50명
4월 20일	유아·청소년: 18명	성인: 60명

| 우리들의 정성 | (4월 19일 ~ 4월 25일)

봉 헌 금	$ 358,10			
교 무 금	$ 590			
구민식	권묘순	김남호	김정수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전인철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한상지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기도 지향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의 건강을 위해
* 서원석 미카엘, 교황 프란치스코의 건강을 위해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본당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4월 27일)	루카반
다음주 (5월 4일)	마르코반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